유일한 유효 연결, 믿음

(마태복음 17:14~23)

14.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15.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16.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18.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 때부터 나으니라
19. 이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0.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유일한 유효 연결, 믿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유일한 유효 연결, 믿음'

우리는 연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신조는 연결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로 유효한 연결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2007년 1월 애플은 아이폰을 출시하여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성공합니다. 이 기가 막히는 제품의 성공비결에 대해 스티브 잡스는 "휴대폰과 아이팟을 연결했을 뿐이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휴대폰은 휴대용 전화기입니다. 그리고 아이팟은 휴대용 MP3 플레이어입니다. 그리고 위에 한 말에 이어서 "창의성이란 단지 사물을 연결하는 것이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스타브 잡스가 가치를 두었던 것은 전에 없던 신기한 기능이 아니라 이미 있던 기능들의 연결이었던 것입니다.

다만 연결은 스티브 잡스의 전매특허는 아닙니다. 이미 온 세상은 연결이 신조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대에는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등의 SNS가 사람과 사람 혹은 사람과 사물의 연결을 위한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생활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연결하겠다는 목표 아래에 사물 인터넷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집 밖에서도 집 안의 가전들을 관리하고 컴퓨터 안에 있는 자료를 언제든지 밖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철학적인 질문을 추가해보면 이것이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연결을 통해 행복해졌는가?”라고 묻는다면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소식을 전혀 모르던 동창생과 SNS로 연결되었을 때에 순간적으로 반갑고 기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삶에 평강과 행복을 가져다주느냐고 묻는다면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연결을 그토록 중요시했던 스티브 잡스는 병상에서 수필을 남겼는데 “그처럼 자부했던 명성과 재산은 닥쳐올 죽음 앞에 희미해져서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연결의 왕으로써 세상에 혁신을 일으키고 어마어마한 재산과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두고 그것들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제야 나는 깨닫는다. 우리 인생의 삶을 유지할 만큼 적당한 재물을 쌓은 후엔 부와 무관한 것들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부터 유추하건데 공언한 적은 없지만 그가 추구했던 것은 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인정한 후에도 적당한 재물은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다만 얼마나 있어야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대답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셨던 예수님은 아무것도 필요 없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안타깝게도 유효한 연결을 몰랐습니다. 육체의 연관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연결을 중요시했지만 정작 그 연결은 무효했기 때문입니다. 이 무효한 연결은 우리의 삶을 조금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청소년들만 보아도 오히려 연결되어서는 안 될 것들과의 연결을 강요받으며 좋지 못한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무효한 연결이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없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인터넷과 SNS를 통한 연결에 집착합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사람 전부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과의 연결이 행복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연관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연결의 단절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30절에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 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계시는 동안 간질병 걸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산 아래에 남아 있는 제자들에게 부탁하였으나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앞서 제자들이 파송되었을 때에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시점에서 어떤 제자도 간질병을 고쳐줄 수 없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군중들과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논쟁을 벌이고 웅성거렸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17절에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라고 하십니다. 20절에서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고 말씀하신 내용도 이와 이어지는 맥락입니다. 이어지는 20절의 하반부를 보면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앞서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서 겨자씨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 사람들의 지식에서는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였습니다. 믿음이 겨자씨 한 알 만큼도 없다는 것은 믿음이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한편 패역하다는 말은 헬라어 디아스트람메네(διεστραμμένη)로써 굽었다는 뜻입니다. 군중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제자들을 볼 때에는 이들의 마음이 하늘과 연결되었음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땅을 향하는 마음을 갖게 된 상태에 놓여있었습니다. 마치 수양버들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멀리서보면 하늘을 향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모든 가지가 땅을 향해 굽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신 믿음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는 표현을 소유적인 의미로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주머니에 지갑을 가지고 있듯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이름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도 옮길 수 있는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 또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에게서 간질병이 떠날 것을 확고히 믿는다면 병이 고침 받고 귀신이 쫓겨나리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앞서 제자들은 파송을 받고 나갔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는 그러한 기적을 일으킬 수 없었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믿고자 노력하여 기적을 베푸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기적을 아버지가 직접 행하시는 일로써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간질병을 고치실 때에는 먼저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간질병을 고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병을 고치셨던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5장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고 말씀하셨으며,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보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이루어지리라는 확

고한 믿음을 통해 기적을 이루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에게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에 온전히 담았던 분은 예수님 한 분 뿐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장갑삼아 활동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몸까지도 장갑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러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이유는 예수님에게서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에게서도 일어나게끔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서 발견되는 믿음의 형태를 도식적으로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 되어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예수님에게로 다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눈앞에 있는 간질병에 걸린 아이를 고치시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의도에 따라 간질병에 걸린 아이를 고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간질병 걸린 아이를 고치시려는 의도가 없으셨다면 예수님께서는 고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군중들을 향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사람이 예수님 말고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실제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간질병 걸린 아이를 고치실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있기만 했다면 누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극단적인 예이지만 하나님께서 설악산을 보고 싶어 하는 서울 사람들을 위해 설악산을 옮겨가기로 결정하셨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이때에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설악산에게 옮겨가라고 명령한다면 설악산은 옮겨질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에서 등장한 산이란 삶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문제에 대한 비유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산이 설악산일지라도 하나님께 그러한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연결입니다. 즉 믿음이란 하나님의 생각이 막힘없이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파송되었던 제자들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일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연결 의식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파송 될 때에 예수님과의 연결을 의식하고 있었습니

다. 그리고 그 연결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이 보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소유할 때에 기적도 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 방해도 없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도록 연결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겨자씨 한 알로 비유될 만큼 겨우 연결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들어올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일 또한 없을 것입니다.

마태는 변화산 사건 바로 뒤에 이 믿음에 관한 사건을 붙임으로써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연결이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만 하는 상태입니다. 물건을 사듯이 일회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천국의 모습으로 변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겼습니다. 어찌나 완벽하게 마음을 빼앗겼는지 이 좋은 광경을 사랑하는 가족이나 동료들과 함께 보고 싶다는 생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산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지 신경도 쓰지 않은 채 산 위에 초막을 짓고 머물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가 이기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천국은 사람의 마음을 남김없이 빨아들일 만큼 좋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변화산의 베드로와 같이 육신을 통해 천국을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 체험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실제로 마주할 때에 마음이 빨려 들어가는 것에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일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의 연결은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생각은 주어질 것이고 설령 그것이 산을 옮기는 것과 같은 기적일지라도 이루어지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패역한 세대라 부르신 것은 이들이 모두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마음으로는 연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향하는 대상을 몸으로도 추구하기 마련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의 입에서는 돈 이야기가 그치지를 않습니다. 자녀를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은 입만 열면 자녀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입만 열면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은 세상을 향하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패역함 즉 땅으로 굽어진 상태였고, 하나님과의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믿음 없는 상태였습니다.

요새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냉장고 TV 청소기를 비롯한 모든 가전을 인터넷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소 편리해 질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이 삶의 행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SNS를 통해 온갖 사람들과 연결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우주의 삼라만상은 물론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고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정말로 연결되어야 할 대상은 땅이라는 평면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야 말로 우리와 연결되어야 될 단 하나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연결되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결을 이루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연결만이 유일하게 유효한 연결입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변화산의 사건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 더 이상 세상에 바랄 것이 없어집니다. 한 번의 연결에 완전한 만족과 기쁨의 상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일회성 사건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단지 그러한 상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으로부터 연결이 시작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산 아래의 일들을 망각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어질 만큼 완벽한 기쁨과 행복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유효한 연결이 지속될 때에 하나님이 나와 연관된 모든 대상들과 연결되어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물론이고 몸으로 대하는 모든 대상들에게 적절하게 연결의 상황을 주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좋아서 결혼하고도 곧 싫어져 이혼하게 되는 이유는 내 뜻대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모자식지간에도 하늘과의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쌓여만 갑니다. 우리와 연결되어야 될 대상은 배우자도 자녀도 아닌 하늘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모든 대상과 연결될 수도 없으며 그 연결이 유효할 수도 없습니다. 복잡한 연결 속에서 삶은 지쳐갈 뿐입니다.

연결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22~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연결의 방식을 제시하십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과의 연결 방법입니다.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는 것은 곧 세상과의 연결을 끊는 것입니다. 심지어 몸에 대한 마음의 연결까지도 끊어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여 하늘만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의 승천에 참여하여 하나님과 연결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면 육체와 연결된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시의 적절하게 만남과 연결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만 연결되어 계셨습니다. 그럴 때에 간질병에 걸린 아이를 만나셨을 때에 그 아이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발견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고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 십 년을 함께 한 부부조차도 매일 매일의 연결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남편도 아내도 신경 써야 할 유일하게 유효

한 연결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 방법이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돈 문제나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연결은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유효한 연결을 이룰 때에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적절하게 주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신앙적 측면에서 우리는 시대에 역행하는 자들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마음의 모든 연결을 끊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과 유효한 연결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세상은 연결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세상에 역행하여 마음에서 모든 대상과의 연결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유효한 연결을 위해 주님과 연합하므로 마음이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 따라 하늘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이 세상에서 몸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연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사랑의 뜻을 따라 연결해 주시는 대로 반응하고 만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